

곡류단절지에 입지한 마을의 경관특성

- 삼지마을을 사례로 -

임의제* · 최기수**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건축도시조경학부

The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Village Located in the Meander cut-off Area

- The Case of Samji Village -

Lim, Eui-Je* · Choi, Key-Soo**

*Graduate School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School of Architecture, Urban Planning & Landscape Architecture
College of Urban Sciences,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This study seeks what kind of factors influence to locate dwellings and to establish scenic spots in nature by a case study focused on a meandering stream. The study specially concentrates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both residences and beautiful sceneries and a meander cut-off area that reveals a special topographical characteristic, located at Samji village in Youngyang-eup, Youngyang-gun, Koungsangbuk-do

The meander cut-off area, developed at the middle or upper reaches of a river, often makes up specific landscapes such as precipitous cliffs, sheer cliffs and caves. And the area where is specially created by a sudden change of flow due to erosion is perceived by the cut surface to be the most beautiful scenic spot. These beautiful landscapes were used to be called as Dae, Dam or Gul and managed by Confucian scholars who enjoy refined taste and devote themselves to the study in nature.

Moreover, the Ku-Hado - literary means the area of ex-flow - made the scholars' living with a well prepared basis for agriculture where supplies a cornucopia of organic matters and water. The merit of agriculture made it possible that the scholars became economically independent, and the fact might be the essential point why the meander cut-off area took noticed. Actually, Cho-family has been in Samji Village

for generations, producing a large number of scholars and keeping the actual power of the region.

The physical shape of the meander cut-off area, cozily surrounded by mountains, is considered as a good place for the dwelling due to the influence of traditional sight of view for location and P' ungsuchiri which is known as Feng Shui in China and geomancy in the western world.

It is a fruit in its own way that we could find the ancestors' discernment and wisdom from this study, who have lived their lives adapting themselves to the given natural environment and also utilizing the nature wisely.

But this is a current-argued study on the meander cut-off area. Follow-up studies have to be continued about the landscapes of the meander streams and the meander cut-off areas scattered all over the country except Samji Village and draw the characteristics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Key Words : meander cut-off area, meandering stream, view of scenic spots, dwelling

I. 서론

한 나라의 경관을 이해하고, 경관을 조성하는 방식, 즉 자신의 삶의 터전을 이해하고 가꾸어가는 방식은 그 나라의 민족성, 지형학적 환경조건, 시대적 배경, 문화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선조들은 자연지세에 순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연을 자연 그 자체로 이해하려는 관념하에서 좋은 장소를 찾고, 그 지역 특유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왔다. 이러한 정신들은 일체의 자연현상을 자기 자신의 전개로 보는 폴아일체의 관념, 그리고 자연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살아가려는 선조들의 청아한 자연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자연을 다루는 한국인의 심성은 지나치게 가공되거나 오밀조밀한 공간을 피하고 자연환경의 훌륭한 입지적 조건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한 한 그 태도의 모습과 더불어 살아왔다.

모든 사물에 미추(美醜)의 차이가 있듯이 산수(山水)의 아름다움에도 차이가 있다. 마찬가지로 산수에도 절서와 법칙이 있고,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동기와 과정은 동일하며, 다만 수단과 대상이 달라질 뿐이다. 지금 자신이 입주할 아파트를 결정한다고 할 때 교통, 교육, 환경 등의 여건을 따지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듯이 산수자연환경이 주된 환경요소인 전통사회에서 산수의 이치를 따져 삶의 장소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같은 의미를 지닌다. 우리

나라는 국토의 6할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그 산들이 물(水)과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산수체계(山水體系)¹⁾를 이루고 있으며, 땅과 밀착된 농경정착사회라는 특성으로 인해 전통사회에서의 산수체계는 일상적인 주요 인지의 대상물이 되며, 나아가서는 세계구조 이해의 주요한 바탕이 되었다. 따라서 이렇게 이해된 산수체계는 전통조경의 경관적 측면이나 관념체계 형성의 주요한 배경이 됨은 물론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건축·조경공간의 원인적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이원교, 1993: 1).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산수와 여러 가지 전통조경·건축양식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은 건축, 도시, 조경, 지리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으며 그 성과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풍수지리라는 틀에 한정되어 산수 자체가 지닌 의미와의 관계분석에 소홀하였으며, 풍수지리가 다분히 산에 비중을 둔 까닭에 수요소(水要素, 河川)를 본격적인 원인요소로 보고 건축, 조경양식과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나 하천은 조경의 주요 관심 연구 대상인 경관이라는 측면에서 주요한 분석대상에 틀림없다. 일찍이 조선시대 실학자인 이증환은 그의 저서 택리지 복거총론(卜居總論) 산수조(山水條)에서 산수자연과 수요소(하천)가 가거지(可居地)²⁾ 선정 및 승경(勝景)³⁾의 경영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⁴⁾

바닷가에 사는 것이 강가에 사는 것보다 못하고, 강가에 사는 것이 시냇가에 사는 것보다 못하다.⁹
오직 시냇가에 사는 것이 평온한 아름다움과 시원스러운 운치가 있고 灌溉와 耕農하는 利함이 있다.¹⁰

즉, 삶의 입지를 선정하고 산수자연이 좋은 곳에서 승경을 경영하는 데에 있어서 계류(溪流) 혹은 곡류하천(曲流河川)은 중요한 인자로 작용했던 것이며 이는 조경양식 속에 내재하는 하나의 문법일 수도 있는 것이다.

지리학 분야에서는 지리적인 장소에 따라 자연 및 사회변화와 현상이 서로 다른 특색있는 지표상의 물리적·문화적 특성이 결합된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찰을 측정하고, 그것에 의해 도출된 현상과 현상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¹¹의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지형의 생성원인 등 다분히 지리·지형자체의 특성을 분석하거나, 취락의 형성과정, 구성형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곡류하천과 곡류단절(曲流斷切)에 관한 연구는 오로지 자연지리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들(송언근, 1988; 서화진, 1989; 김종일, 1993; 송언근, 1993; 김주환과 최병권, 1994; 최병권, 1995)에 국한되고 있다.

건축·도시·조경 분야에서는 문화경관의 개념에 접목시켜 전통주택·마을·원림·승경 등의 양식들의 배치, 구성, 입지, 공간특성, 경관특성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또한 각 양식들을 유교적, 풍수지리적 측면에서 해석한 연구도 상당하였다. 관련 연구로서 주목할 만한 것은 곡(曲)과 경(景)을 통해서 전통경관구조를 해석한 연구(최기수, 1989)와 택리지에 언급된 가거지의 경관특성을 분석한 연구(전미경, 1995)이다. 최의 연구에서 나타난 곡과 하천과의 관계는 본 연구에서 다루려는 곡류하천지역의 승경요소 중의 하나로 파악될 수 있다. 또한 전의 연구는 택리지에 언급된 계거지를 사례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택리지에서 꼽은 가거지가 갖는 경관특성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관련 연구의 대부분이 하천을 하나의 자연환경요소로서 파악했을 뿐 하천의 지형·지리적 특징을 통해 주변에 조영(造營)된 경관양식의 특성을 고찰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곡류하천 중에서도 특징적인 지형적 형상인 곡류단절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경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하였다. 전통적으로 삶의 입지를 정하고 그 곳을 의미있는 장소로 만드는데 있어서 자연환경이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면, 과연 곡류하천과 그곳에 형성된 곡류단절지(曲流斷切地)가 지나는 경관적 특성과 의의는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전통적인 경관관(景觀觀) 및 입지관(立地觀)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려고 하는 삼지마을과 같은 곡류단절지는 자연상태의 곡류하천에서 관찰되는 지형중의 하나지만 그것이 조경학적으로 의의를 가지는 이유는 이들 지역의 개략적인 특징이 단애(斷崖), 절벽(絶壁), 폭포(瀑布) 등의 형성으로 인한 승경형성 및 비옥한 토지로 인한 거주지역으로서의 선호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삼지마을이라는 연구지역이 지닌 하천지형적인 특징을 밝히고 이러한 자연환경적 특징이 삼지마을에 선조들이 거주하고 경관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문헌조사와 답사를 통해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삶의 터전으로서의 산수자연에 대한 태도와 관념에 대한 이해를 좀더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연구지역은 국립지리원 발행 축척 1:25,000 지형도 상에서 조사한 전국(북한지역 제외)의 곡류단절지 중에서 선정하였는데, 지형도상에서 조사된 전국에 분포하는 곡류단절지의 예로는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청령포),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평창군 미탄면 기화리, 삼척군 하장면 갈전리, 영양군 영양읍 삼지리,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반구대),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등 남한 지역만 해도 113여 곳(송언근, 1993: 93)에 이른다. 이들 곡류단절지 중에서 본 연구가 곡류단절지에 대해 조경학적으로 처음 접근하는 연구인 점을 감안하여 곡류단절지로서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지역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즉 절단곡류(切斷曲流)의 평면형태 길이가 일정규모¹² 이상으로 거주활동이 활발하고, 유교문화가 잠재되어 있으며, 주변에 다수의 승경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였는데¹³ 영양군 영양읍 삼지(三池)마을은 이러한 곡류단절지로서의 특징이 뚜렷하게 관찰된 지역이었다.

II. 곡류단절지의 형성과 특징

1. 감입곡류하천과 승경

구불구불한 좁은 골짜기의 감입곡류(嵌人山流, incised meander) 하천은 원래 평야지대에서 발달한 자유곡류(自由山流, free meander)¹⁰⁾ 하천과는 달리 충적평야 지역이 아닌 산간지역의 산지 사이를 곡벽(谷壁)의 제약을 받으면서 비교적 제한된 유로(流路)를 따라 곡류하는 하천을 말한다(권혁재, 1987: 49). 기반암 위를 흐르기 때문에 유로의 변동은 크게 일어나지 않으며 대체로 하천의 중·상류 지역에서 발달하기 때문에 측방침식(側方侵蝕) 보다는 하방침식(下方侵蝕)이 우세한 편이다(최병권, 1995: 16).

감입곡류하천의 하안(河岸)에는 곡류하천의 발달에 절리(節理)의 영향이 간접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유수(流水)의 침식작용이 강하게 작용하는 공격사면의 곡벽(曲壁)에는 부분적으로 측면적인 요지(凹地, notch)가 발달해 있다. 어떤 것은 공격사면에 발달한 요지의 규모가 상당히 커서 마치 동굴을 연상케 하고 있다. 이런 현상도 절리의 발달이 기초가 되어 하안의 취약부분에 침식이 집중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절리가 발달한 부분이 중심이 되어 침식을 받은 흔적이 나타나기도 하며, 습곡구조의 충리면이 중심이 되어 발달한 흔적도 있다. 이와 같은 지질·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하천의 중·상류에 발달하는 감입곡류하천은 여러 가지 형태의 단애, 절벽, 동굴 등의 특징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으로써, 승경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연구지역인 삼지마을에서 언급이 될 다수의 승경



그림 1 절리발달과 승경(삼지마을의 선유굴)

도 그 곳을 가거지로 삼은 선비들에 의해 감입곡류하천의 특징적인 지형들이 승경으로 명명된 것이다.

2. 곡류단절지의 형성과 특징

1) 곡류단절의 개념과 형성과정

곡류단절(meander cut-off)은 지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곡류절단(曲流切斷)이라고도 하며, 하천의 중·상류 감입곡류부가 절단되면서 직선화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강, 낙동강, 금강의 중·상류부 및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양사면(兩斜面)을 흐르는 감입곡류하천에 주로 분포(송언근, 1993: 93)하고 있다.

곡류단절의 발생은 하도(河道) 변경의 일종이며, 가장 급격한 변동이다. 곡류단절지는 하천의 침식 방향과 관련되어 모두 현 하상(河床)과 구 하상간의 고도차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평면형태나 규모에 있어서는 모두 평면적 발달이 상당히 진행된 점(서화진, 1989: 4-8)으로 보아 곡류발달 초기가 아니라 곡류하도의 발달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유수(流水)의 측방침식(lateral erosion)과 하방침식(vertical erosion)이 동시에 발생하여 하천의 곡률도(曲率度)가 일정한 한계에 이르게 되면 유수의 작용이 방해받게 되고, 이 때부터 현재의 곡류단절의 경부(頸部, neck)¹¹⁾에 침식력이 집중되어¹²⁾ 곡류단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국지적인 특징으로서 기반암, 절리와 같은 구조선(構造線)¹³⁾ 기타 지형적인 인자들이 경부의 침식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최병권, 1995: 102-104).

2) 곡류단절지의 농경적 이용과 경관적 특징

곡류하천과 곡류단절은 자연상태에서 관찰되는 지형 중의 하나이지만, 그것이 조경학적으로 의의를 가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승경 및 가거지의 선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쉽게 관찰되는 특징은 곡류단절지 내에는 구하도(舊河道, 舊流路)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곡류단절지에서 구하도는 비교적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지형도 상에서 등고선의 분포상태를 관찰하면 대체로 구하도로 간주할 수 있는 지형면을 추정할 수 있으며,

퇴적층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구하도를 추정할 수 있다. 곡류단절지에서 현재는 구하도내에 소규모 계류의 발달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들은 구 하상면을 침식하며 흐르고 있다. 또한 소규모 계류 외에 구하도를 나타내는 흔적으로 하적호(河跡湖)를 흔히 볼 수 있으며(이지호와 이영택, 1972: 41), 이들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수로, 연못 혹은 저수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곡류단절지 내의 구하도 주변에 부유퇴적층(浮遊堆積層)이 발달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감입곡류하천이 발달하는 중·상류의 산간지역에서 곡류단절지 내에 형성되는 토지만큼 비옥하고 평탄하여 농경지로 개간하기 용이하면서, 어느 정도 농경에 적합한 규모를 가진 토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곡류단절지의 위요성을 들 수 있다. 곡류단절이 일어나기 전의 감입곡류하천 주변이 그러하듯이 곡류단절지의 주변은 산들의 연봉(連峰)으로 둘러쳐져 있다. 이는 전통적인 입지관 및 풍수지리의 배산임수설(背山臨水說)과 맞물려 가져다 선정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특징은 곡류단절의 발생원인의 하나로서, 하안의 침식을 촉진시킨 것으로 생각되는 곡류하도 하안에 발달해 있는 절리 지형이다. 이러한 절리 지형은 유수에 의해 쉽게 침식을 받아 곡류단절지 주변에 단애, 절벽 등의 특징적인 경관을 형성하게 되어 승경으로 불리워지게 된다.

III. 삼지마을의 경관특성

1. 삼지마을 개관

삼지(三池)마을은 본래 경상북도 영양군 등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인근 사평동, 원하동, 연지동의 각 일부를 병합하고, 이 곳에 있는 세 연못(三池)의 뜻을 따서 삼지리(三池里)라 하여 영양읍에 편입되었다(한글학회, 1966: 122). 이곳은 원래 사월(沙月) 조임(趙任)¹¹⁾이 이곳에 문중 종택(宗宅)인 월담헌(月潭軒)을 짓고 살기 시작한 이래로 한양(漢陽) 조씨(趙氏)의 세거지였으며 현재에도 대부

분의 거주자가 한양 조씨로 구성되어 있다. 월담헌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602년(선조 35년) 조임이 나이 30세때 이 집을 지었다고 한다. '성화(成化) 17년명(年銘)'의 막새기와가 전하여지고 있어 임진왜란 이전의 건물임을 알 수 있으며, 고승인 성지(性智)가 터를 잡은 명당이라 한다. 이 집은 낙동강의 지류인 반변천(半邊川)이 앞을 흐르며, 선유굴(仙遊窟)과 옥선대(玉仙臺), 비파담(琵琶潭)을 바라보는 경치가 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경북문화재



그림 2. 월담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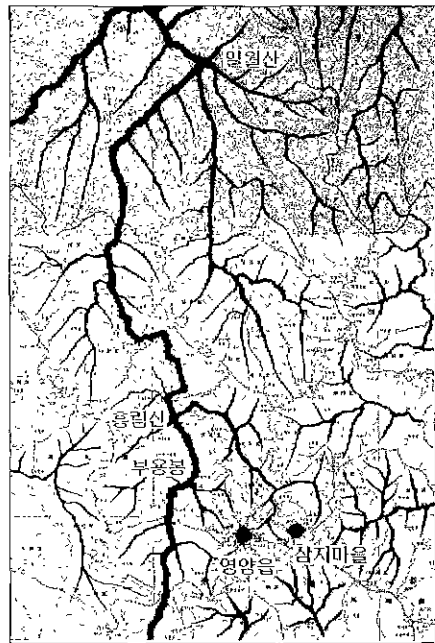


그림 3. 삼지마을의 위치와 주변 산수체계
자료: 1:50,000 지형도(1999) 국립지리원
(필자 제작성)

대관, 1980; 영양군, 1982).

2. 산수체계로 본 삼지마을의 입지

삼지마을이 속해있는 영양군은 경상북도의 동북에 위치하였는데 태백산맥이 북으로부터 뻗어 내려와서 서쪽으로는 소백산맥과 백암산맥(白岩山脈)으로 분기하고 다시 남으로 뻗어내려 영양군의 북부에서 일월산(日月山, 1,218m)이 높이 솟아 있는 백암산맥이 동남으로 둘러싸는데 동서보다 남북이 길게 뻗은 형상이다(영양군, 1970: 5).

산세는 경상북도 내에서도 가장 높은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는데 낙동강의 원류인 반변천⁵⁾이 일월산에서 동서로 발원하여 북에서 남으로 흘러 산세를 동서로 양분하였다. 그러므로 북쪽보다 남쪽이 산세가 낮다. 따라서 영양군내에는 대소산맥이 솟아 있어 산악지대가 광대하게 형성됨으로써 평탄한 논밭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반변천의 유역에는 곳곳에 작은 평야가 열려 있으며, 연구지역인 삼지마을도 곡류하천인 반변천 유역에 형성된 평야 중의 하나이다. 특히 곡류단절지의 특징인 구하도 주변지역의 개간 및 농경활동의 용이성으로 인해 그 가치는 일찍부터 인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지마을에 이르는 주요 산수체계는 일월산의 중앙지맥이 남쪽으로 뻗어 내려와 흥림산(興霖山)이 되었으며, 흥림산의 지맥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영양읍 뒤의 황룡봉(黃龍峰, 일명 부용봉)에 이르렀고, 좌측 지맥이 다시 동쪽으로 뻗어 내려 일월면 곡강동(曲江洞) 앞 산인 척금대(滌襟臺)를 이루었다. 척금대는 삼지마을 주변의 승경이며 그 옆의 봉우리가 삼지마을

뒤편의 여기봉(女妓峰)이다. 사월 조입은 자신의 집인 월담헌을 지으면서 그 기문(記文)에 주변의 산수자연에 대한 느낌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못물이 일월산에서 나와서 동으로 밀리고 남으로 흘러서 몇 번이나 굴절하여 원담(元潭)까지 와서는 처음에는 깊이가 지척도 얕되던 것이 여기에 와서 고여서 높이 되어 편편하고 넓어서 갯벌이 되어 배를 움직이며 뗏목을 띄울 수 있고 좌우의 산들은 모두 일월산에서 뻗어 나와 물과 함께 감돌아서 몇 곳의 신령스러운 구역을 많이 만들었으나 홀로 산수의 명승지로 고은(古隱)의 으뜸으로 삼는 것은 서로는 립산(霖山)⁶⁾이 구름과 안개에 가려서 울음창창하여 큰 기름에 장맛비(霖雨)를 잔직한 것 같고, 동으로 수수(壽壽)에는 해와 달이 떠올라서 영원무궁함이 우리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빌기에 알맞으며..

3. 가거지로서의 삼지마을

1) 삼지마을의 농경문화적 특성

삼지마을의 사들(沙坪)에 있는 조씨 문중의 고택 마당에는 고인돌이 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거의 국토 전역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들은 서해 및 남해의 연해지역과 큰 하천의 유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전라도, 황해도에 가장 밀집되어 있다. 그러나 동해지방으로 가면 그 분포가 희박해지며 대부분의 위치는 서해로 흘러가는 강줄기 근처로 결국 우리나라 고인돌은 서해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601-604). 그러나 삼지마을은 경상북도의 준 산악지대이며, 기존의 고인돌 발굴 현황을 살펴보면 삼지마을이 속한 영양군에서는 고인돌이 발견된 관련 학계의 보고가 없었다. 따라서 삼지마을에서 발견된 고인돌은 이곳의 곡류단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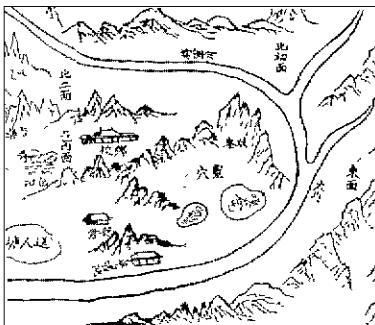


그림 4. 경상도 영양읍지에 보이는 삼지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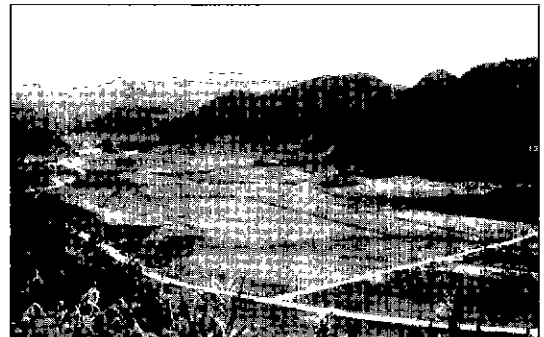


그림 5. 곡류단절지인 삼지마을의 평야

가 선사시대부터 채집과 농경생활에 적합한 곳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의 거주지로 선택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특히 이곳의 급격한 갑입곡류하천 지형상 평야 지대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가장 먼저 정착한 곳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삼지마을의 농경문화적(農耕文化的)인 성격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특징은 구하도의 비옥성, 생산성에 관련된 사항이다. 현재 삼지마을에서는 곡류단절지의 구하도내에 발달하는 소규모 계류 혹은 구하도를 나타내는 흔적으로 세 개의 연못(三池-하적호의 일종)이 남아 있는데, 이들은 농사를 짓기 위한 농수로, 연못 혹은 저수지의 형태로 남아 농경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유용한 관개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삼지마을의 평야 지대는 조선시대 한양 조씨가 일만석을 거두었다고 할 만큼 비옥하고 생산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는 산간지역의 곡류하천변에 소규모의 평야가 곳곳에 형성되어 경작지로서 이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곡류단절지 만큼 구하도 주변에 퇴적층이 발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상류의 산간지역에서 비옥하고 평탄하여 농경지로 개간하기 용이하면서, 농경에 적합한 대규모의 토지는 찾아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삼지마을이 속한 영양군은 산지가 많은 군으로 평야는 하천의 계곡을 따라 협소하게 발달하고 경지는 비옥하지 못하며(국립지리원, 1985: 359), 경상북도에서도 첫 손에 꼽히는 고원지대로서 전체 넓이의 87%가 임야이고 경지면적이 10%에도 못 미치는 곳(뿌리깊은 나무, 1983: 122-123)¹⁷⁾이다. 이러한 산간지역에서 삼지마을 같은 곡류단절지는 거주지로서 좋은 조건을 지닌 곳이었다. 즉,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우선적으로 정착하여 삶을 영위할 정도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구하도 주변의 퇴적층 발달에 의한 비옥성, 하적호에 의한 관개의 용이성, 산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평야지대의 형성 등은 이곳이 지닌 농경문화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삶의 영위와 관련된 농경문화가 정착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 때문에 삼지마을과 같은 곡류단절지는 산간지역의 곡류하천지역 중에서도 일찍부터 삶의 터전으로서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2) 한양 조씨의 입향과 거주

사대부의 가거지에 대해 택리지(이중환, 1987: 28)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한 빈 사대부의 행실을 닦으려면 예(禮)가 아니면 할 수 없고 예는 또한 부(富)가 아니면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불가불 집을 세우고 직업을 마련하여 사례(四禮, 관혼상제)로써 위로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 가족을 보살피 문호(門戶)를 보존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러므로 사대부가 살만한 곳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 때에 이(利), 불리(不利)가 있고 거주지의 좋고 나쁜 것이 있고, 인사(人事)에도 진퇴, 출처의 다름이 있는 것이다.

즉 사대부가 벼슬을 떠났어도 계속 그 지위를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어렵다. 그러므로 양반들은 가거처, 즉 살기 좋은 곳을 머리에 그리며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각자의 가거지를 보는 기준은 조금씩 달랐으나¹⁸⁾ 일반적으로 공통된 사항은 경제적인 면과 인심(人心), 산수(山水) 요건이었다. 그 이유는 사대부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경제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했으며, 산수가 맑고 빼어나야 인물이 배출된다는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이장희, 1989: 73-78).

삼지마을에 세력가인 한양 조씨가 정착한 것은 월담헌을 복축(卜築)한 사월 조임의 조부인 조원(趙源)이 입향(入鄕)하면서부터이다. 조임은 한양 조씨가 삼지마을에서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으며, 주변의 승경을 찾아 풍류를 즐기기도 한 한량이었다. 조임이 삼지마을에 자신의 저택이자 한양 조씨의 종택이 되는 월담헌을 축조하면서 쓴 월담헌기(月潭軒記)에 보면 이곳을 거주지로 삼은 내력이 다음과 같이 드러나 있다.

.....이런 경치는 백리, 이백리의 단대를 가더라도 구하기 어려운데 이같이 가까운 곳에서 얻게 되었으니 조물주가 공교로움을 다하고 기이함을 나타내어 백년을 감추어 두었다가 오늘이 오기를 기다린 것이다. 이제 좋은 땅을 점령하여 썩은 흙을 헤치니고 목석(木石)을 실어 와서 남향의 위치에 마루와 방을 세우는데 마루가 네칸이요, 방이 세칸이니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에 알맞으며 그윽한 회포를 떨기에 충분하다.....내가 장차 이곳에 거처하고 이곳에서 놀고 휴식하며 증족을 모아 평생을 마칠 것이며 또 후손에 정하여 이씨(李氏)의 평천(平泉)¹⁹⁾과 오씨(吳氏)의 횡산(橫山)과 같이 한다면 산은 더욱 높을 것이며 물은 열려서 환하게 개척되어 마루는 장식하지 않아도 더욱 빛날 것이다.....

윗 글에서 보면 이곳을 가거지로 삼은 이유가 소위 말하는 남향의 살기좋은 땅이라는 점, 산과 물이 조화 된 아름다운 곳이라는 점이며, 그래서 평생토록 살만한 거처가 된다는 것이다.

삼지마을을 풍수지리적인 측면에서 본 지리적 형국은 금거북이가 진흙 속에 빠지는 형상인 금구몰니(金龜沒泥)의 형국으로 볼 수 있다. 삼지마을의 주변을 여기봉을 비롯한 여러 봉우리들이 감싸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 솟은 봉우리²⁰⁾가 반변천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국은 풍수지리에서 택지로서 대길(大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¹⁾

한편 종택인 월담헌의 배치를 살펴보면 좌향(坐向)은 전형적인 임좌병향(壬坐丙向)을 취하고 있다. 또한 정면에 곡류단절부인 옥선대(玉仙臺)를 안대로 취하고 있으며(그림 6), 입지한 곳은 곡류단절지의 경부, 그러니까 삼지마을의 마을 어귀 부분이다. 이는 승경을 바라보고 주택을 배치한 까닭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곡류단절지 내부의 평야(곡창)지대를 어귀에서 지킴으로써 타인들로부터 거주지의 영역성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즉 삼지마을과 같이 곡류단절지에 형성되는 평야지대는 다른 하천변에 형성된 평야와는 달리 그 형성원인으로 인해 향아리 모양을 하고 있어서 출입부가 한 곳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영역성의 확보가 용이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곡류단절지의 특징은 양반들의 거주지 선정에 있어서 경제적인 기반 확보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이장희, 1989: 78), 그 기반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와 맞물려 더욱 주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양 조씨는 삼지마을과 그 주변(상원동, 하원동, 대천동, 주곡동 등)을 근거지로 삼아 조선 중기 이후 영양군내

에서도 제일가는 세도가로 자리잡게 되었다.²²⁾

4. 승경으로서의 삼지마을

1) 삼지마을의 승경과 누정

경상도읍지와 영양군지를 참고하여 현장답사를 한 결과 조사된 삼지마을 주변의 주요 승경과 누정(樓亭)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이 중에서 현재 확인 가능한 승경과 누정은 그림 7에 위치를 표시하였으며, 국립지리원 발행 1:25,000 지형도(1999)를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2) 승경의 설정과 경영

조임이 삼지마을에 터를 잡으면서 지은 누정들의 기문을 보면 이곳에 대한 작점자의 승경관이 잘 표현되어 있다. 월담헌기(月潭軒記)에 이르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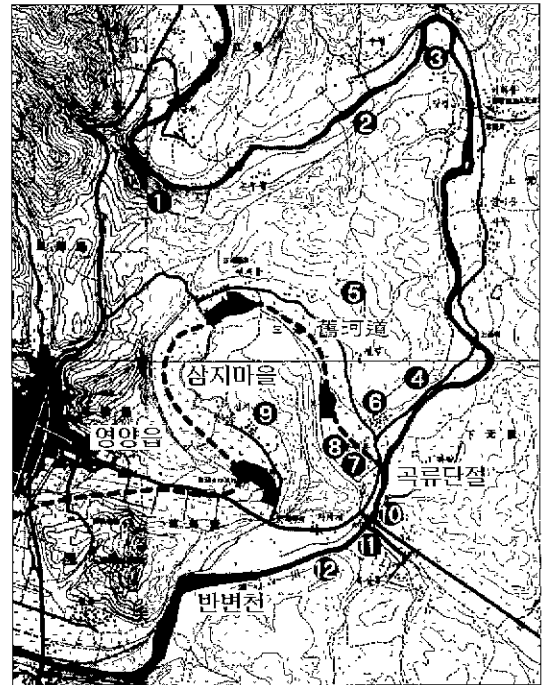


그림 7. 삼지마을의 승경과 누정 위치도

별례. 1. 척금대(澈襟臺); 2. 풍영대(風泳臺); 3. 세심대(洗心臺); 4. 선유굴(仙遊窟); 5. 영월사(靈悅寺); 6. 월담헌(月潭軒); 7. 양호대(養浩臺); 8. 숙운정(宿雲亭); 9. 하담정(荷潭亭); 10. 옥선대(玉仙臺); 11. 삼귀정(三龜亭); 12. 비과담(比卦潭)



그림 6. 월담헌의 좌향과 옥선대

표 1. 주요 승경과 누정의 경관특성

구분	명칭	위치	경관특성
승경	척금대	일월면 곡강동	• 반변천이 북에서 흘러 내려와서 대(臺) 아래에 담(潭)을 이루고, 강변은 석벽을 이루었으며 그 위에 석대가 있으니 그 높이가 십여척임
	풍영대	영양읍 상원리	• 척금대 하류에 수월(무다리)마을 앞의 석벽에 풍영대라는 각자(刻字)가 있으며, 흐르는 물은 담을 이루어 깊고 고요함
	세심대	영양읍 상원동	• 풍영대를 지나 상원동(당평리)에 이르러 동쪽으로 흐르는 반변천에 큰 바위가 빈신은 수중에, 반신은 강변에 놓였는데, 그 위에 백여인이 앉아 놀만함
	양호대	영양읍 하원동	• 선유굴을 지나서 반변천 강변에 백척이 넘는 층벽위에 있음
	선유굴	영양읍 하원동	• 반변천이 영양읍 하원동에 이르러 층벽을 이루었는데 그 아래에 강물이 담을 이루어 수심(水深)하여 뱃놀이를 할 만함 • 석벽의 중간은 요(凹)형으로 굴을 이루어 망안길이 되어 있으며, 석대가 평평하여 가히 수백인이 앉을 만함 • 석벽위에 선유굴이라는 각자가 있는데 삼주(三州) 조박옹(趙博翁)의 글씨임
	옥선대	영양읍 대천동	• 류령(流嶺)에서 산맥이 뻗어져 서쪽으로 기복을 지어 들어와서 대천동의 북편에서 일어섰다가 반변천에 와서 끊기고 강변에 절벽을 이루었는데 그 높이가 수백척임(曲流斷切) • 절벽위 산정이 평탄하고 사방으로 노송이 늘어서 있으며, 조망하는 경치가 좋음
	비파담	영양읍 대천동	• 반변천이 북에서 내려와 하원동앞 산기슭 앞에 와서 큰 못을 이루었는데 흐르는 돌 소리가 흠사 비파갈음
누정	월담헌	영양읍 하원동	• 현양 조씨 종택 • 무이구곡기(武夷九曲記)중 월민공산수만담(月滿空山水滿潭)에서 유래
	속운정	영양읍 하원동	• 조임이 월담헌의 백보거리 평야 위에 정사(亭)를 짓고 속운정이라 명명 • 정자 앞으로 강이 흐르고 정자 뒤로는 영혈사와 연지의 승경이 있음
	삼귀정	영양읍 대천동	• 대천동의 동편 강변에 지은 용계(龍溪) 오옹(吳翁)의 정자 • 맑은 계류가 동쪽으로 흘러내려와 정자 아래에서 분류한 것이 쌍룡계(雙龍溪) • 반변천 위에 기암이 층벽을 이루고, 노송이 늘어섰으니 옥선대 • 대천(반변천)이 정자 아래를 돌이 서쪽으로 수백 보 거리에 입을 어루니 비파담 • 이곳에서 보는 반월산(半月山)과 부용봉(芙蓉峰)의 저녁놀(暮靄), 선유굴의 고기잡는 등불(魚火)과 저녁 종소리(暮鐘)가 모두 그림자라고 함
	주강정	영양읍 상원동	• 상원동 강변 석대 위에 있던 주강(杜江) 조시광(趙是光)의 정자 • 꿈이 만년에 정자를 세우고 주강헌(柱江軒)이라 이르니, 이는 강중에 큰 돌이 있어 지주를 이루었으므로 이를 사랑하여 명명하고 자신의 아호로 하였음 • 정자 아래로는 강물이 흘러 강중에는 거석이 나열되어 심한 여울을 이뤄 흐르는 모양이 기이함 • 부근에는 척금대, 세심대, 옥선대, 선유굴이 있어 산수경승이 좋은 곳임
	강정	영양읍 하원동	• 선유굴 위에 있는 강자로 월담헌에서 수백보 되는 지점 • 뒷쪽으로 재님이 영혈사의 종소리가 들리고, 남으로 옥선대가 바라보이며, 북으로 일월산의 영봉이 조망됨
	히담정	영양읍 심지동	• 히담(荷潭) 조인관(趙彦觀)의 정자 • 사들(沙坪) 산록하에 서향으로 지었으며 못에 비치는 산천의 그림자와 연꽃이 좋음
	송원정	영양읍 대천동	• 송원(松源) 오승봉(吳承鳳)의 정자 • 송원정이 축조된 곳은 고월지남반(高月之南畔)이며, 비파담지상(琵琶潭之上)이요, 옥선대와 부용봉이 보이고, 면데담과 선유굴이 곁고 가깝게 있으니 절경이라 하였음 • 송원정 기문에 보면 쌍룡계 위쪽에 지었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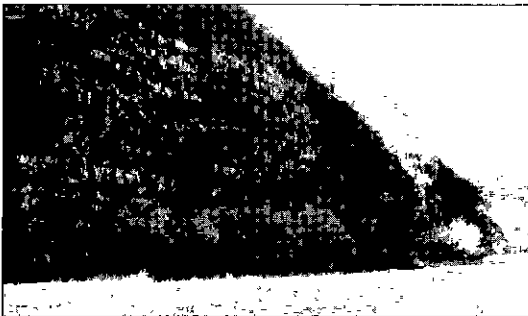


그림 8. 척금대



그림 9. 세심대



그림 10. 양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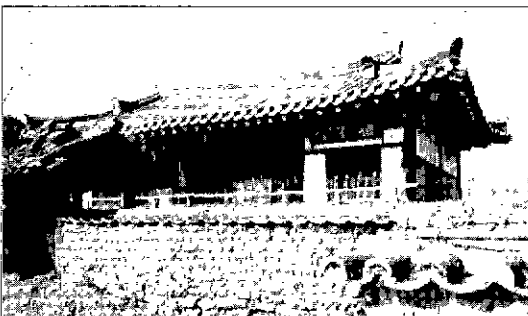


그림 11. 숙운정

...홀로 산수의 명승지로 고은(古隱)의 으뜸으로 삼는 것은 서로는 흥림산이 구름과 안개에 가려서 울음창창하여 큰 기쁨에 장맛비를 간직한 것 같고, 동으로 수수(壽齒)에는 해와 달이 떠올라서 영원무궁함이 우리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빌기에 알맞으며, 그 위에 푸른 병풍이 둘러지고 물을 따라 석굴(石窟)이 된 것이 선유굴이고 그 아래 층층으로 된 절벽이 위는 편편하여 바람 쏘이기 좋은 것이 옥선대이다. 북에 영혈(靈穴)과 연지(蓮池)의勝景이 있고, 남쪽에는 비파담(琵琶潭)과 월파(月波)의 경치가 있으니 이런 경치는 백리, 이백리의 먼데를 가더라도 구하기 어려운데 이같이 가까운 곳에서 얻게 되었으니 조물주가 공교로움을 다하고 기이함을 나타내어 백년을 감추어 두었다가 오늘이 오기를 기다린 것이다. 一현판하기를 월담현이라 하니 어느 분이 물기를 “그대의 현(峴)함 이름은 월만공산수만담(月滿空山水滿潭)의 뜻인가”하였다. 내가 답하기를 무이구곡(武夷九曲)은 주자께서 산수에 흥취를 붙이신 것인데 내 용렬한 사람이 어찌 천현의 마음과 자취에 비길 수 있겠는가. 다만 물이 못을 이루어 달빛을 더욱 질 받고 현함이 못위에 있어 맑은 기운이 서로 비치기 때문에 경치에 따라 붙인 이름이니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 ...

하였다. 또한 숙운정기(宿雲亭記)에 이르기를

...허원(虛遠)함을 숭상하지 않고 위협하지도 않고 인력을 허비하지 않고 천연 그대로를 온전히 하여 산과 강이 둘러져 있으며 고기 잡는 어부와 나무하는 초부들과 서로 찾으며 원숭이와 사슴과 벗하여 숲과 골짜기가 너그럽고 한가로워 숨어사는 사람의 고반(考槃)과 과축(陔曲)으로서 가장 일맞은 곳은 나의 정자이다 대개 정자터가 맑은 못 절벽위에 위치하여 훑어본 산기슭의 허리에 국세(肩勢)를 맺어서 큰 들에 임하여 농구(農謳)를 들을 수 있으며 손님이 와서 술을 부를 때 집사람이 곧 대답할 거리에 있고 또한 선굴(仙窟)과 선대(仙臺) 사이에 끼어 있어 안기생(安期生) 선문(羨門) 같은 신선들의 무리와 물결 밖의 세상에서 만날 수 있으므로 이곳에 정자를 짓게 된 것이다.

하였다. 누정은 자연관조의 전망대이며, 몰입자연(沒入自然)과 환입선경(幻入仙境)의 대체로서 독특한 조형성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은둔과 귀향의 심사를 자연의 승경에 의탁해서 술회하는 누정기(樓亭記)와 누정시(樓亭詩)를 짓고 발전시켰다. 누정에서 읊은 누정기시와 누정명(樓亭名)은 특히 외부환경과 관련하여 축조 당시 작정자의 작정의도와 감회를 잘 표출해 내고 있으며(유병림 등, 1989: 93), 작정자의 인생관, 처세관 그리고 사상과 정서까지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길동, 1991: 43-48).

월담현기에 보이는 누정 명칭의 유래는 유학자로서

의 조임의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다. 무이구곡은 중국 남송대의 주자(朱子)가 무이산에서의 생활을 구곡(九曲)과 정사(精舍) 경영을 통해 체계화시킨 형식이다. 주자는 조선조 유학자들의 규범이 되는 인물이며, 주자의 무이구곡과 정사의 경영은 성리학자들의 유토피아적인 규범으로 여겨져 왔다. 구곡은 '계곡이 굽이쳐 산수가 빼어난 곳의 냇물 굽이와 봉우리마다 이름을 짓고 글과 그림을 함께 하고, 그 중의 한 곳에 정사를 지어 자연을 즐기고 학문을 수련하고 교육을 하는 곳' 이라고 할 수 있으며(이원교, 1993: 96), 구곡시는 산수 자연을 차용하여 도학(道學)의 성취단계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최기수, 1989: 72). 월담헌기에 표현되었듯이 월담헌의 명칭 유래가 되는 '월만공산수만담'은 무이구곡가의 삼곡(三曲)의 한 구절이 된다. 즉 조임은 산수가 빼어난 곳에서 구곡을 경영하며 자연을 가까이하고 학문을 성취했던 주자를 본받아 정자를 짓고 주변의 산수자연을 무이구곡에 못지 않은 승경으로 생각하고 경영하였던 것이다.

숙운정기에서 작정자인 조임은 초부, 어부들과 함께 산점승, 숲, 계류 등의 산수자연 속에서 한가롭고 유연하게 숨어사는 은자의 여유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옥선대, 선유굴과 같은 주변의 승경 경영을 통해 신선과 교유하면서 살아가는 이상적인 공간을 꿈꾸기도 하였다.

한편 월담헌기와 숙운정기에 서술된 '이런 경치는 백리, 이백리를 가더라도 구하기 어려운데 이같이 가까운 곳에서 얻게 되었으니' 라던가 '대개 정자터가 맑은 못 절벽 위에 위치하여.....술을 부를 때 집사람이 곧 대답할 거리에 있고' 라는 표현은 이증환이 택리지에서 논했던 바²⁶⁾와 같은 맥락을 지닌다. 즉 앞글에서 언급했던 바 지리(地理)와 생리(生利)를 가려 가져지를 선정하고, 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승경을 경영하여 가까이 함으로써 산수와 함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을 복거(卜居)의 이상적인 형식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편 조임은 삼지마을 월담헌에서의 경관과 풍류생활을 여러 시문으로 남기기도 했는데 다음은 그 일면을 보여주는 칠언절구²⁷⁾이다.

정자집 어찌 낙양을 부러워할까

새로 엮은 집 속히 풍광을 천단하도다

기둥은 흰 달을 맞으니 삼경이 밝았는데
문은 푸른 병풍을 대해 백적이나 기네

좋은 벗 올때에 작은 텃을 연했고
맑은 못 모인 곳에 흐르는 잔을 끌었고야

현암을 비껴 한번 아양곡을 타서
남주 이시랑에게 부치노라

삼지마을의 주변을 감싸고 흐르는 반변천은 전형적인 감입곡류하천으로서 주변에 많은 승경을 이루었으며, 삼지마을에 이르러 곡류단절의 형상이 됨으로써 경관흐름의 절정에 이르게 된다. 그 절정부에 위치한 승경이 곡류단절부인 옥선대이며, 이곳의 승경을 경영했던 사월 조임은 거주처인 월담헌을 지을 때 옥선대를 주요 조망대상인 안대로 삼아 좌향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삼지마을 주변의 승경형태를 분석하여 보면 곡류하천변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자연적으로는 곡류하천변에 주로 발달하는 대(臺), 담(潭), 굴(窟)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인공조영물인 누정은 하천 및 주변의 승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지마을을 둘러싼 감입곡류하천은 여러 가지 형태의 단애, 절벽, 동굴 등의 특징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형들이 유학자들에 의해 승경으로 명명되고 경영되었다. 감입곡류하천의 특징적인 경관들에 대한 선호 혹은 승경으로의 설정은 현재의 우리도 그러하거나와 자연과 벗하여 풍류를 즐기고 자신을 수양하던 옛 선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여기에도 삼지마을의 경우에는 곡류단절 현상이 만들어 놓은 특징적인 경관과 주변 산세의 위요에 의해 승경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인 것으로 보여진다.

IV. 결론

어떠한 사상과 문화도 그것이 발생되고 전승되기 위해서는 적합한 풍토를 요구하게 된다. 사상과 문화는 자연환경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에 대한 일정한 태도 즉 자연·공간관 내지 세계·우주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문화와 자연환경은 마치 달팽이의 살과 집처럼 결합되었으며 그 형태적 표현이 바로 곡도에 반영된 경관관과 가거관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전통경관 연구는 하천의 지형·지리적 특징을 통해 주변에 조형된 경관양식의 특성을 고찰하는데 관심이 미미하였으며, 곡류하천 중에서도 특징적인 지형적 형상인 곡류단절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경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된 적이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곡류단절지에 위치한 삼지마을이라는 연구지역이 지닌 하천지형적인 특징을 밝히고 이러한 자연환경적 특징이 삼지마을에 선조들이 거주하고 경관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삶의 터전으로서의 산수자연에 대한 태도와 관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하천의 중·상류에 발달하는 감입곡류하천은 지리적인 영향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의 단애, 절벽, 동굴 등의 특징적인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다수의 승경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여타의 감입곡류하천에서도 나타나지만 특히 삼지마을과 같이 하천의 유로가 침식에 의해 급격한 변동을 일으킨 곡류단절지인 경우에는 절단부의 지형상이 더욱 특징적인 경관을 연출함으로써 두드러진 승경 요소로 인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감입곡류하천과 곡류단절지가 만들어낸 승경들은 삼지마을의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풍류를 즐기고, 산수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자신의 수양에 더욱 정진하려는 유학자에 의해 대, 담, 굴 등으로 명명되고 경영되었다.

한편 곡류단절지가 지닌 농경문화적 특성과 지형적 장점은 삼지마을에서 한양 조씨가 입항 후 세력을 형성하고 계속 유지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곡류단절지에 형성되는 구하도는 유학자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었는데, 구하도의 흔적인 소규모 계류와 연못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수로나 저수지의 역할을 하여 관개의 편리함을 제공하였다. 또한 유기물이 퇴적되어 형성된 토지는 비옥하고 평탄하여 산간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훌륭한 농경지였다. 이러한 곡류단절지의 농경문화적 이점은 유학자들의 경제적인 기반

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가거지로서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 판단된다. 또한 삼지마을과 같이 곡류단절지에 형성되는 평야지대는 그 형성원인으로 인해 출입부가 한 곳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중택을 배치함으로써 거주영역성을 유지하기가 용이하였는데, 이는 거주지 선정에 있어서 경제적인 기반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와 맞물려 더욱 주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지마을의 형세는 택지로서 대길하다는 금구물니(金龜沒泥)의 형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는 곡류단절지의 지형적 특성상 주변이 산으로 둘러 쌓여 아늑하게 위요가 되기 때문이다. 즉 곡류단절지의 지형적 특성이 전통적인 입지관 및 풍수지리의 형국론과 맞물려 양택(陽宅)의 길지로 생각되었으며, 가거지 선정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주어진 자연환경에 순응하면서 동시에 슬기롭게 자연을 이용하며 삶을 영위해 나갔던 선조들의 안목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나름의 성과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곡류단절지에 대한 시론적 연구이며, 삼지마을 이외의 전국에 산재한 곡류하천과 곡류단절지의 경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비교분석을 통한 특성 도출은 이후에 남겨진 연구과제이다.

주 1. 산수체계는 사전적 의미로 풀이하면 산과 물을 계통적으로 통일한 조적을 의미한다(새국어사전, 1990).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자연을 '산수'와 동일한 의미로 불려왔다(손우규, 1994: 321) 즉 산과 물이 항상 짝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자연이다. 도읍의 입지를 선정할 때도, 개개의 건축물을 지을 때도 산과 들은 항상 결합의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산(山)과 물(水)이 별개의 것이 아닌 하나의 체계로 인식되어 공간인식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와 문헌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암 신경준의 산경표(山經表), 다산 정약용의 대동수경(大東水經) 등의 지리적 저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산과 물을 산경(山經)과 수경(水經), 산계(山系)와 수계(水系), 혹은 씨줄과 날줄과 같이 하나로 통합하여 인식하였다.

주 2. 가거지란 사전적 의미로 살만한 곳(livable place), 살기에 적합한 땅 혹은 그러한 장소를 의미한다(새국어사전, 1990). 살기 좋은 곳을 선정하는 선택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살고 있는 곳을 지칭하는 거주지(厝住地), 주거지(住居地)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는 택리지의 별칭이 팔각가거지(八域可居地)이기도 하며, 그 명칭을 붙인 의도가 양반으로서 낙향하기를 생각

- 하던 계층이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하려는 눈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이중환, 1987: 10).
- 주 3. 승경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뛰어나게 좋은 경치(fine view), 혹은 그러한 곳을 지칭하는 말로써, 경치가 좋음을 뜻하는 경승(景勝), 명승(名勝)과 비슷하거나 좀더 강조된 의미를 지닌다(세국어사전, 1990) 경(景)에 관련된 단어는 무수히 많고 그 의미의 차이는 미미하여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경이란 단어의 앞뒤에 다른 단어가 조합되어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데, '경치가 좋은 곳'을 지칭하는 단어는 경치(景致), 경개(景概), 경승(景勝), 경취(景趣), 경색(景色), 경물(景物), 경상(景象) 등을 비롯해서 가경(佳景), 절경(絶景), 승경(勝景), 광경(光景), 양경(良景), 명경(名景), 명승(名勝), 풍경(風景), 호경(好景)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승경은 전체적, 총체적으로 보이는 경관이 뛰어남을 뜻하는 말로써 다른 유사단어에 비해 경관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포괄적이며 강조된 의미가 담겨있으며, 지리지(地理誌), 읍지(邑誌), 문집(文集) 등의 옛 문헌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 주 4. 이중환은 주거지 선택의 네가지 요소로서 지리(地理), 생리(生利), 인심(人心), 산수(山水)를 들고 있으며, 이중 산수주에서 거론된 승경과 거주지로서의 계거(溪居)에 관한 내용이다(이중환, 1987) 한편 서유구는 네가지 요소 외에 수토(水土), 즉 물과 토질의 요소가 중요함을 첨가하고 있기도 하다(서유구, 1966).
- 주 5. 海居不如江居, 江居不如溪居
- 주 6. 惟溪居, 有平穩之美蕭酒之致. 又有瀟瀟木石之利
- 주 7. 문화경관(文化景觀)은 인간이 공간이 공강이 창조하여 형태상으로 드러낸 '인간화된 환경'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관에는 자연에 대한 인간집단의 문화적 태도와 그 작용과정이 반영되어 있다(김덕현, 1991: 212-213).
- 주 8. 조사된 10개 곡류단절지내의 구하도(舊河道)의 평면길이는 약 1.2Km-4.0Km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구하도의 평면길이는 곡류단절지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규모가 클수록 거주활동이 활발하고 승경이 많이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주 9. 물론 pilot survey결과 여타의 곡류단절지 대부분이 이러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예를 들어 울주의 반구대 지역, 영일의 청령포 지역 등) 본 연구의 시론적 여건을 감안하여 대표적인 곳을 우선 연구하기로 하였다. 조사된 곡류단절지 전체에 대한 연구와 비교, 분석을 통한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의 도출은 추후 연구에서 밝힐 예정이다
- 주10. 곡류하천(Meandor)이라는 용어는 예게해로 유입하는 터키의 Buyuk Meanderes라는 하천의 명칭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하천의 곡류현상이 뚜렷하여, 이미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이 하천의 곡류현상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곡류하천 중에서 자유곡류하천은 넓은 범람원 상에서 하천의 유로(流路)가 곡벽(谷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유로를 좌우로 이동하며 흐르는 것을 말한다(최병권, 1995: 12).
- 주11. 단절이 되어 현재 단애 또는 절벽의 형태가 된 부분을 말한다
- 주12. 곡류하도의 평면적 반경(r)과 하폭(w)과의 비율(r/w)인 곡률도가 커지면서 하도 내에서의 유수의 흐름에 하안과의 마찰력이 많이 발생하여 흐름이 방해를 받으면서 구하도에서 공격사면에 속하는 현재의 경부의 취약부가 침식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최병권, 1995: 104)
- 주13. 구하도의 하안에 발달했던 절리가 하천의 측방 침식에 도움을 주어서 곡류하도의 절단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즉 전민적으로 곡류단절이 발생하기 이전의 곡류하도의 하안에 발달한 절리가 곡류하도의 절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최병권, 1995: 109)
- 주14. 조임(1573-1644년, 자: 자중, 호 사월, 지중추부사): 1592년 임진왜란때 함 경(儉)과 의병을 일으켰으며, 판계우와 함께 싸웠다. 1636년 병자호란때에는 군수물자를 조달하였다(영양군지, 1970: 227)
- 주15. 반변천은 일월산 아래의 영양군내 대소하천을 통털어 지칭하는 것으로 예전에는 대천(大川)이라고 부른 듯하다(신증동국여지승람 영양군편 하천조)
- 주16. 영양군에 있는 흥립산을 말한다.
- 주17. 이는 영양군이 경상북도내 23개 시군 중 행정구역은 815 km²로 청송군에 이어 12번째로 넓지만, 경지면적은 6,852 ha로 울릉군, 울진군에 이어 3번째로 작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경상북도, 1997 경북특계연보).
- 주18. 이중환은 사대부의 가거처로서 지리(地理), 생리(生利), 인심(人心), 산수(山水)를 들어 낙토(樂土)로 규정하였으며(이중환, 택리지 북거총론, 이익은 가거지란 선비의 학덕을 존경받아 문벌과 같은 대접을 받는 곳이며, 불가거지란 의식부족, 무(武)의 우세, 사치풍습 등이 만연한 곳이라 하였다(이익 성호문집 권32 택리지서), 또한 정약용은 가거지로 물과 나무가 풍부한 곳, 오곡이 풍성한 곳, 풍속과 산천이 아름다운 곳을 들고 있으며(정약용 여유당전서 제1집 제14권 시문집 발백리지), 목회경은 벼슬에서 물러나면 도회나 대읍(大邑), 산수가 수려한 곳, 친구와 친척이 모여 있는 곳이 선비의 가거지로 적합하다 하였다(이중환, 택리지 목회경찬 발백리지)
- 주19. 당의 이덕유가 기화이초(奇花異草)와 기암괴석(奇巖怪石)을 모아서 만든 평천 별장을 말한다.
- 주20. 곡류단절지 중심부에 남아있는 봉우리는 지리학적으로 곡류핵(曲流核, meander core)이라고 하며, 환류구릉(還流丘陵)이라고도 한다(송인근, 1993: 93). 곡류단절부위(경부, neck)의 절단에 의해 형성된 구릉이어서 당연히 하천과 마주하고 있으며, 그 형태도 길쭉한 형상을 하고 있어서 거주민들에게 자라의 형상으로 인지되고 있었다.
- 주21. 금구(金龜)가 진흙탕에 빠지면 토생금(土生金), 즉 오행(五行)의 상생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토(土)는 땅속으로부터 오행의 기(氣)를 받아 사물을 잘 만든다 따라서 택지로써 대길하다(이몽일, 1991).
- 주22. 경상도읍지와 영양군지의 인물편에서 조임, 조전(趙詮).

조검(趙儉), 조령(趙領) 등 한양 조씨 집안의 인물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주23. 은자(隱者)가 숨어사는 곳 시전위풍(詩傳衛風) 고만에 「考槃在澗 碩人之寬 考槃在阿 碩人之遊 考槃在陸 碩人之軸」에서 나온말. 과(題)는 한가로움, 축(軸)은 유연한 모습을 말함이다
- 주24. 농부의 노래를 말함이다.
- 주25. 선유굴과 옥선대를 말함이다.
- 주26. 기쁨진 땅과 넓은 들에 지세가 아름다운 곳을 가려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좋다. 그리고 10리 밖 혹은 만나절 길쭉 되는 거리에 경치가 아름다운 산수가 있어 매양 생각이 날 때마다 그 곳에 가서 시름을 풀고...(擇沃土 廣野地理佳處築居買名山佳水於十里之外或半日程內每一意到時時往復以消憂, 이증환. 택리지 복거총론 산수조)
- 주27 亭 奚須 洛陽. 新構猶足攬風光, 櫺迎素月三更朗, 門對蒼屏百尺長, 勝友來時聯小榻, 清潭滄處引流觴, 憑軒一彈 洋曲., 寄與南州李侍郎(영남누대지)

인용문헌

- 1 건설부. 국립지리원(1985) 한국지리 지방편Ⅲ
- 2 경상도읍지.
- 3 경상북도(1980) 경북문화재대관
- 4 경상북도(1997) 경북통계연보.
- 5 권혁재(1987) 한국지리 총론편. 서울. 법문사.
- 6 김길동(1991) 조선시대 선비계층의 주거문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덕현(1991) 유교적 촌락경관의 이해(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편,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서울· 민음사.
- 8 김종일(1993) 영산강 곡류절단부에서의 하도 변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9 김주환, 최병권(1994) 평창강의 곡류하도 발달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제24집 한국지리교육학회.
10. 대동여지도.
11. 민족문화추진위원회(1986) 신증동국여지승람 영양군편.

12. 뿌리깊은 나무(1983) 한국의 발견 경상북도편
13. 새국어사전(1990) 서울· 교학사.
14. 서유구(1966) 임원경제집요지. 서울: 서울대학교서간학회.
15. 서화진(1989) 감입곡류천의 구하도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16. 손오규(1994) 산수문학연구.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17. 송언근(1988) 왕피천 절단곡류의 지형발달 경북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18. 송언근(1993) 한반도 중·남부지역의 감입곡류 지형발달. 경북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19. 영남누대지
20. 영양군(1970) 영양군지.
21. 영양군(1982) 내고장전통가꾸기
22. 유병림, 황기원, 박종화(1989) 조선조 정원의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설 환경계획연구소.
23. 이동일(1991) 한국풍수사상사 서울· 명보문화사
- 24 이원교(1993) 전통건축의 배치에 대한 지리체계적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25. 어장희(1989) 조선시대 선비연구. 서울 박영사
- 26 이증환(1987) 택리지. 이익성 역. 서울: 을유문화사.
- 27 이지호, 이영택(1972) 국토와 지도 서울· 보진재.
28. 이익, 성호문집 권32.
- 29 전미경(1995) 택리지의 가거지 경관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박사학위논문
30. 정약용. 여유당전서 제1집 제14권
31. 조임 사월문집
32. 최기수(1989) 곡과 경에 나타난 한국전통경관구조의 해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박사학위논문
33. 최병권(1995) 남한강 상류의 곡류하도 발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34. 최창조(1984) 한국의 풍수사상 서울. 민음사
35.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36. 한글학회(1966) 한국지명총람 경북편
37. 한한대사전(1988) 서울· 민증서림.